

“꿈나무들 과학 관심 키우는 정보통신 시간여행 되길”

정보통신 기기 4500여점 기증 장항남 박사

에디슨 축음기·광석수신기 등 평생 모은 수집품 내놔 오늘 조선대 옛 대학원 건물내 정보통신박물관 개관

장항남 정보통신박물관은 조선대 미대 옆 구 대학원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아직은 조선대 구성원들에게도 낯선 이곳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원통형 축음기부터 타이파닉스에서 사용하던 무선기, 세계 최초 라디오, 제2차 세계대전에 썼던 군 통신장비, 현대 무선 통신 기기까지 정보통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기들이 가득하다. 30일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장항남 정보통신박물관'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없이 박물관을 찾았던 장항남(73) 박사는 개관에 앞서 진행된 프레스 오픈 자리에서 벽찬 소감을 밝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가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 때문입니다.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정보통신의 발전은 어떤 사람의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입니다. 박물관에서 인류 지혜가 축적된 정보통신 기기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과 역사적인 교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박물관은 지난 1946년 조선대 최초로 지어져 등록문화재 제589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건물에 자리했다. 입구에 들어서고

개를 들면 투명한 유리 너머로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목조양식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커커이 쌓인 먼지만큼이나 많은 자연을 간직한 1125㎡(340평) 규모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흑백영화에서 본듯한 오래된 라디오와 카메라가 등장해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테마별로 나뉜 방에는 장 박사가 40년 넘게 수집한 정보통신 기기 4500여 점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왼쪽으로 들어가면 선박 조타실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목재 조타장치도 관람객을 반긴다. 정보통신기술의 기초가 되는 소리와 전기가 어떻게 발생해 활용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다. 과거 인류가 활용했던 전화 등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오래된 기기들이 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 축음기, Kellogg 전화기, 초기 스피커, 광석수신기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정보통신 품목을 볼 수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기기에는 영어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이 함께 다양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장 박사는 완도군 고금면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

고 1972년 의사수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1977년 뉴욕에서 내과 개업을 하고 약 40년간 전문의로 활동하며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로 활동했다. 광주·전남 최초로 아마추어 무선사가 된 그는 1974년 미국 아마추어 특급무선사가 됐고 키보드를 활용한 모스 부호 송수신법을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키워왔다.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쳐 평생 수집한 품목을 아낌없이 내놓은 그에게 이유를 묻자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의대생이었지만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새로운 기기를 발견할 때 행복했습니다. 특히 작은 기계로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과 말을 주고 받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수집품목이 늘어날수록 그 속에 담긴 정보통신발달과정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는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만들어 그동안 수집한 물건들을 기증하려고 생각한 이후 많은 기관과 협의했는데 조선대학교가 가장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대한 사재흥 총장님의 열정에 감동해 조선대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장 박사는 조선대 제6대 총장을 역임하고 김택주 교수가 장인이며 부인 김영자 씨와 차남 김병철 명예교수가 조선대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박물관이 광주·전남 자리라는 꿈나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



장항남 박사는 40년간 수집한 정보통신 기기를 조선대에 기증하며 더 많은 이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기에 소망했다. <조선대 제공>

과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연 속에 숨겨진 원리에 호기심을 품었고 이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장난감에 지나지 않던 것이 과학적 원리를 이

해하자 더할 나위 없는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처음 수집할 때는 저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 장난감을 모으듯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조선대에서 오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40년간 수집한 정보통신 기기들을

보고 더 많은 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기에 바랍니다.”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20명 이상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하면 (062-230-7780) 우선 입장할 수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프로골프회, 초록우산재단에 자선 골프 수익금 전달



광주프로골프회(회장 박종상)는 최근 영암 아크로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 프로암 골프대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 150만원을 광주 초록우산재단에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금형산업진흥회 광주·전남 학생에 장학금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3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 금형산업진흥회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진흥회에서 장학금 지급 수여대행 총장 및 고등학교장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갖고,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 및 전남 공립고 등 고등학생들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임동룡기자exian@



이용섭 전 의원 오늘 광주국제청 강연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광주지방 국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이 원장은 이날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란 주제로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장과 국제세관원장, 관세청장, 국제청장, 행정자치부장관, 국회기획재정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세무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최근 정부 세제개편이 ‘부자감세 서민증세’ 방향으로 가면서 조세제도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촉발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또 “특히 늘어나는 복지재원 확보와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역군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외부 유혹이 많은 만큼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ki@

광주 2030 대학로 페스티벌 열린다

내달 3~5일 전남대 후문 길거리공연·클럽파티 등 주류·노래방 할인·경품도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2014 광주 2030대학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2014 광주 2030대학로 페스티벌은 버스킹 공연과 길거리공연, 야외DJ를 클럽파티, 지역대학밴드 공연 등 20~30대를 위한 문화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3일(금)에는 인기 걸그룹 '마마무'와 슈퍼스타K로 잘 알려진 '오브젝트' 등이 참여한 초청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학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 행사기간 주류 50% 할인, 노래방 이용료 50% 할인 등 다채로운 경품행사를 진행해 20~30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20~30대를 위한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와 접미된

지역 상권을 위해 전남대후문상가변영회를 주축으로 OB맥주, 보해양조(주) 등이 참여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란 컨셉에 맞게 지역 대학밴드 및 20~30대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버스킹 형태로 주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2014 광주 2030대학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문행우 공동위원장은 “지역 20~30대를 위한 맞춤형페스티벌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시아 문화의 중심, 광주에 걸맞은 젊은 20~30대의 즐거운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고)박성용·김강남씨 차남 철호군 김동건(전 전남전기공사협회 지부장)·문정옥씨 차녀 화영양=10월 5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서구 치평동 피엔제이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이용연(서명대 부총장)·황성임씨 아들 윤근 장준욱씨 딸 최은영양=10월 3일(금) 오후 5시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라쿠치나. 광주하객 오전 10시30분 롯데마트 월드점 주차장 B4구역 전세버스(은하수여행) 출발.

▲임춘근(자영업)·최영석씨 장남 상국군 이찬호·김덕순씨 장녀 정민양=10월 4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중구 정파로 LW컨벤션 3층.

▲박화영·김옥연씨 장남 일훈군 최병준(학다리고 교사)·김강순씨 차녀 지은양=10월 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리베스타웨딩홀 4층 다이밍홀.

▲송명기(용산전력 회장)·이경자씨 차남 현중군 양동운·박선란씨 장녀 일심양=10월 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양동

웨딩의 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김남일·조양희씨 차남 성길군 이재신·윤영희씨 장녀 은민양=10월 4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메종 드 보네웨딩컨벤션(옛 꿈의공전웨딩홀) 1층 보네르홀.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월례회=10월 6일(월)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자

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중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원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부음

▲김기래씨 별세 오도순(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평순(전 수협중앙회 자재사업장)씨 모친상=발인 3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최매순씨 별세 범열호(광주시 공원녹

지과)·진천(우리은행 하남공단금융센터)씨 모친상=발인 10월 1일(수) 광주 북구 문흥동 그린장례식장 4층 VIP실 062-250-4455.

▲김순모씨 별세 안상민(순천나눔교회 목사)·이석(사조화인코리아 이사)·선순(전 무등일보 기자)씨 모친상 박선정(동아시아문화도시 기획단장)씨 장모상=10월 1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박재규씨 별세 종일·종원·정희·순자씨 부친상=발인 10월 1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최화일씨 별세 명제·재희씨 부친상=발인 10월 1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101호 故김영철 님(남/52세) 子/子婦: 김근영, 김근수 女: 김하늘 未亡人: 박영미 ·발 인: 10월 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102호 故조재영 님(남/78세) 子/子婦: 조영국/김민영 女/婿: 조미화/임준영 ·발 인: 10월 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p>201호 故박형철 님(남/81세) 子/子婦: 이금주, 박민호/김인희 女/婿: 박이경/세광삼, 박정희/김성수 未亡人: 정우숙 ·발 인: 10월 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p>	<p>401호 故조현자 님(여/60세) 子/子婦: 정재홍/박민영 女/婿: 정다경/이범규 夫君: 정태하 ·발 인: 9월 30일 ·장 지: 담양 부의동산 ·연락처: 227-4383</p>
<p>402호 故강말래 님(여/82세) 子/子婦: 손성인/배명자, 손영옥/문점숙, 손성경/이봉자 女/婿: 손애순/양명호, 손애숙/김규봉 孫: 손은서, 손진아 ·발 인: 10월 1일 ·장 지: 나주 신포 선영 ·연락처: 227-4314</p>	
<p>孝 金호장례식장 문 의 (062)227-4000 http://www.mykuimho.com</p>	